

“전문건설 82%, 군살빼면 효율성 개선”

자원 투입량 대비한 산출량 효율성 낮아 사업규모 줄이면 매출·영업익 개선 가능

전문건설업체의 82%가 사업규모의 축소를 통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박선구 책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발간한 논문집 '건설경제산업연구'에 게재한 'DEA모형을 이용한 전문건설기업 효율성

분석'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2012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효율성 분석에 따르면 요소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 100%인 규모수익불변(CRS) 값이 1로서 극히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전체 100개 가운데 3개사에 불과했다. 또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 마이너스도 있었지만 100%

를 유지한 규모수익가변(VRS) 값이 1로서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 기업은 11개로 나타났다.

규모수익성 분석에서는 IRS가 15개, DRS가 82개사, CRS가 3개사로 나타났다. 규모수익성이 IRS로 나타난 기업은 규모의 증가를 통해 효율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DRS로 나온 기업은 규모의 축소를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문건설업체는 규모를 축소해야 효율성이 개선된다고

박 책임연구원은 풀이했다.

한편 비효율적인 전문건설업체는 효율적인 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자본을 58.0%, 판매비와 관리비를 55.7% 초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책임연구원은 “건설업 장기침체로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자원의 투입과 생산물의 산출에 있어 효율성을 개선, 차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상규 기자